
第18回서울特別市議會(定例會) 環境水資源委員會會議錄 第6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0年7月5日(水) 午前10時

場所 環境水資源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撤回案
 3. 서울特別市天然가스市內버스導入關聯財政支援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된案件

1.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 1面
 2.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撤回案(서울特別市長提出) ... 2面
 3. 서울特別市天然가스市內버스導入關聯財政支援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

(10時 44分 開議)

○委員長 金鍾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가 5대 의회 상임위원회 전반

기를 마감하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환경수자원 위원장으로서의 직책을 큰 과오 없이 수행하게 된 것은 오로지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덕택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이 한 차원 높아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며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의원으로서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결과로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였습니다.

며칠 후면 5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유념하시어후반기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제 20여 일간의 정례회 일정이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撤回案, 그리고 서울特別市天然가스市内버스導入關聯財政支援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서울시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통하여 바람직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時 47分)

○委員長 金鍾來; 의사일정 제1항 2000年度 環境水資源委員會 所管 部署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누락되었거나 수정보완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2000年度 環境水資源委員會 所管部署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뒤에 실음)

2.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撤回案(서울特別市長提出)

(10時 48分)

○委員長 金鍾來;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撤回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전문위원 나오셔서 철회안 제출경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南中;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撤回案에 대한 경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11월 11일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99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3월 7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보류중인 안건으로서 2000년 6월 13일 서울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 의거해서 우리 위원회의 철회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회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의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99년 4월 22일 개정되어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동 개정조례안을 부의하였습니다.

그 후 관련법인 都市計画法의 개정으로 도시공원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조항변경 및 우리 市 규제개혁위원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 개입이 우려되는 조항 삭제요구 등 추가조례 개정사유가 발생되어 기이 부의된 조례안을 새로이 정비하여 재부의코자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撤回案에 대하여 철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撤回案은 철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撤回案
(뒤에 실음)

3. 서울特別市天然가스市内버스導入關聯財政支援에 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0時 51分)

○委員長 金鍾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天然가스市内버스導入關聯財政支援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環境管理室長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존경하옵는 金鍾來 委員長님, 그리고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염려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해 주신 덕분에 6월 29일 드디어 은평권역 공영 차고지에서 천연가스버스 15대가 무사히 운행행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운행의 시대를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앞으로 천연가스버스의 도입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 있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금번 서울特別市天然가스市内버스導入關聯財政支援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天然가스市内버스導入關聯財政支援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大氣環境保全法 개정으로 천연가스 버스도입과 관련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도입자와 버스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 도입자 즉, 버스업체가 전반적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유버스보다 비싼 천연가스버스 도입시 현재의 조례상의 융자금 지원만으로는 초기부담이 커서 사업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버스구입시의 초기부담을 해소하고 천연가스버스의 도입을 적기에 유인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도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융자금 지원 이외에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天然가스市内버스導入關聯財政支援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보급을 보다 촉진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을 앞당기고 시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히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南中; 3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天然가스市内버스導入關聯財政支援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寬洙 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金寬洙 委員; 지금 시내버스 경영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했는데, 그런 단순한 표현 말고 버스업자들의 경영진단을 市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그것은 交通管理室에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寬洙 委員; 그냥 알고 계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어디 흔히 말하는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나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지금 環境管理室에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필요하다면 交通管理室에 협조를 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寬洙 委員;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지만 버스업자에 관한 노선문제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기존업자들의 완강한 저항, 나아가

서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버스업자들에게 끌려 다니는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그런 것을 옆에서 따라다녀서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적자경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닌가, 진짜 우리가 파악한 대로 업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와 같은 또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더욱 강화해서 그들이 사업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도 흔쾌히 동참하리라고 보는 것이지만 경영진은 실질적으로 배를 불리고 관을 향해서는 엄살을 부리는 그런 결과가 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官에서 경영이 열악하고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하는 단순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그 경영진단에 의해서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동참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그런 근거자료에 대한 파악이 우리 室長님께서 지금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자료에 의해서 이리이러하게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언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交通管理室에서 버스업계의 구조조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동안 어려운 업체들과 도산 직전에 있는 업체들은 정리를 해서 재정비를 하고 그것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交通管理室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그대로 똑같은 가격에 의해서 교체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구조조정은 하는 것 그대로 하면서 해 버리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요.

실제로 버스 가격이 3,100만원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 업체에서도 자꾸 어렵다고 발뺌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CNG버스 보급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자꾸 유인을 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金寬洙 委員; 그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업자들에게 끌려가는 인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얘기를 또 인용을 하면, 서울시내에서 대단히 큰 버스회사를 경영했던 사람이 자기 회사를 처분하고 또 다시 버스회사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황증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얘기 할 수는 없습시다만 특히 버스업자들에게 우리 서울시 교통관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관의 정책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차액 3,100만원을 분명히 자기들의 수익에 의해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는 엄살을 부려서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室長님은 어떻게, 뭐 어떻게 하실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객관적인 경영진단 속에서 나온 것이냐, 과연 버스업체들이 죽을 지경으로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냐라는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

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交通管理室로부터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交通管理室에서 市長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 그런 근거가 있고, 그 동안 저도 버스업계, 물론 도시가스업계도 전부 업계 대표를 만나서 그 사람들로 부터 다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좀더 상세한 내용은 요즘도 우리 大氣保全課長이 계속 이분들을 한 사람씩 접촉하고 있으니까 생생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大氣保全課長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CNG버스를 시작했을 적에, 지금 요금이 7월 1일자로 20% 올라가서 상당히 그렇게 됐었는데 작년도만 하더라도 지하철이 확충되고 또 백화점의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해서 손님도 격감된 데다가, 더군다나 요금이 안 올라서 사실은 그 사람들을 1 대 1로 만나보면 市에서 시영버스를 하라, 우리는 그만두겠다.....

○金寬洙 委員;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소위 이러한 것을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근거로 이런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웬만한 정책은 용역을 잘 주더라고요.

그러면 交通管理室로부터라도 자료를 받아야 제가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적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 조사해보지 않으면 업자들 엄살부리는 대로 놀아나는 결과도 될 수 있잖아요.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물론, 그런 우려는 상존해 있습니다.

○金寬洙 委員;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버스노선이 딱 나오잖아요. 승차할 때 전자카드로 하는 것도 있고 현금은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종업원 수 등 전문적인 용역업체가 아니라도 그것은 샘플링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 놓고 우리가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얘기지요.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접촉해 봤을 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고, CNG버스의 도입이나.....

○金寬洙 委員; 애로사항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그 자료는 交通管理室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마 버스요금도 7월 1일자로 20%.....

○金寬洙 委員;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네, 交通管理室에 협조를 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자료를 지금 가져 오세요.

李松竹 委員님.

○李松竹 委員; 室長님, 지금 정부에서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는 버스회사가 많기 때문에 업자끼리의 딜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천연가스버스 운수업자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저희가 어차피 그와 같이 취한 것은 딜에 의해서 전환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대폐차를 하려고 하는 것을 당장 경유차량으로 하지 말아라, 왜냐 하면 지금 경유차로 대폐차를 해 버리게 되면 그 차는 앞으로 2007년까지 다시 CNG로 바꾸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억제를 시키면서 대폐차 하는 것이 좀 어렵더라도 일단 CNG로 바꿔라, 그래 가지고 나중에 딜로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인수받는 것으로 조정을.....

○李松竹 委員; CNG로 시행 후에 딜을 하도록 해라?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李松竹 委員;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 당초에는 보조비를 66%에서 53%로 하향조정한 것은 업자들로서는 좋은 현상이 아니지만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참 잘 했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요금비율도 34%에서 47%로 늘어난 것도 참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지만 속도가 현 버스 속도보다는 CNG버스가 저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저속 주행하는 버스를 탈까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현 버스와 CNG버스를 비교를 해 보셨는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위원님, 그것은 실제로 시내 주행하는 속도는 경유버스나 CNG버스나 주행시간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대기보전과장으로.....

○李松竹 委員; 그런데 외국에서는 저속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것은 내용은 잘못 전해진 것 같습

니다. 우리 대기보전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6월 29일날 우리가 5대를 은평공영차고지에서 여기 李聲九 副議長님께서 그날 시승을 1호차에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市長님이나 기자들이나 모두 타고 시청 앞까지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광화문에서 차를 타고 소음이나 속도나 급발진이나 급브레이크나 또는 추월성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부 점검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경유차에 비해서 아무런 손색이 없고 오히려 소음이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하는 소리밖에, 그래서 외국에서 저속으로 한다 하는 것은 도시 교통혼잡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시내버스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李松竹 委員; 지금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사회 모든 것이 처음에는 자신있지만 하다 보면 결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신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외국에서 아주 작은 결점이라도 그것을 크게 부각시켜서 운영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덜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과 더불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李聲九 委員님.

○李聲九 委員; 일전 은평공영주차장 개장식 때 한번 본위원

도 시승해 보니까 디젤차가 엔진소리가 달달달 이렇게 나는 소리가 안 들려서 승차감은 상당히 좋다는 느낌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목적만큼은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사이 環境管理室에서 수고를 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걱정을 같이 해 보면 가스값을 정부에서 150%를 내년 봄부터 올리겠다고 하는 문제하고 결국은 업자가 이득이 되어야 이 사업이 계속 이쪽으로 번져나갈 텐데 그 문제가 같이 정부 가스가격하고 연계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더 크게는 우리가 지금 버스 8,000대를 대당 3,000만원씩 일단은 보조를 해서 하려면 연내에 총예산이 2,400억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서울 대기질의 개선이 한 2%의 기여도를 냈다면 사실은 큰 틀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 점검을 하면서 본위원의 얘기는 대도시들이 주로 가고 있는 것이 버스로 수송분담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경은 버스는 없습니다. 동경을 보면 시내버스 없습니다. 전부 지상철, 지하철입니다. 우리가 지금 2기 지하철까지 수송분담이 40%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버스가 현재 39%, 두 개 합해서 80%인데 본위원 생각은 역시 도외지 수송분담은 지하철로 70%를 넘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길게는 버스보다 지하철로 수송분담을 넘기고 단지 CNG 엔진은 자동차 메이커로 하여금 엔진을 저가에 공급해서 지금 3,100만원이 주로 엔진부분에 나오는 차액 아닙니까? 이 가스엔진을 교체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죠. 다른 비용이 아닌 줄 압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자동차 메이커가 연구해서 버스만 아니고 대부분의 디젤차를 바꾸어 나가는 이 정책으로 가야 결국은 환경정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큰맥을 같이 걱정을 합니다.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부터 본위원은 3대 때부터 시내버스는 지금 우리 金寬洙 委員도 말씀했습니다만 우선 버스노선 배정문제 지금 環境管理室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천연가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은 관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얘기입니다.

크게는 버스노선 배정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황금노선에서는 지금도 장사가 잘 됩니다. 역시 적자노선은 계속 지하철에 손님을 뺏기고 수송이 지체되기 때문에 요즘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자들은 계속 반환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버스면허 반납할 테니까, 이 소리를 이 사람들이 아주 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이 업자들한테 꿈쩍 못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법은 노선입찰을 해라, 나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공영주차장을 당시에 은평에서 처음 짓는 것부터 나도 개입을 했던 사람인데 빨리 공영주차장을 요소별로 지금 7개를 짓고 있습니다.

빨리 지어서 버스노선을 입찰제로 가기 전에는 서울시가 버스업자들한테서 프리할 수 없다, 하여튼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수송분담을 39%나 맡겨 놓고 어떻게 버스업자한테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입찰제로 가라, 왜냐 하면 맥을 하나 얘기할게요.

좋은 노선은 입찰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에 15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입찰 시범해 보기 위해서.

내가 하여튼 7~8년 주장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행정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내가 기왕이면 같이 참고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도 서울시는 폐차노선에만 입찰제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폐차노선만 가지 말고 업자가 안 달라붙는 데는 지원금을, 이렇게 얘기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A노선, 그러면 은평에서 서울역에 오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에 30대를 넣어서 10분 배차에다가 어떤 서비스 조건을 넣어서 배차를 하는데 적자노선 같으면 3년 계약을 할 때 연간 10억씩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면 제일 적게 지원해 달라는 데를 입찰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치로 황금노선에서는 그 노선에서 내가 15억을 내놓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쉽게 말해서 서울시내 전체노선의 입찰가격이 제로로 떨어지면 그것은 버스요금이 적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도 지원액이 나간다면 요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요금에 대해서도 아주 시민들이 조금만 올려도 불만이 많습니다.

어느 선을 우리가 기준을 못 정합니다. 그래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노선하고 요금을 입찰함으로써 우리가 요금에 대해서, 그리고 노선 부정에 대해서도 프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천연가스를 도입하면서도 본위원이 말하는 입찰제를 같이 交通管理室하고 연구해서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배정의 문제, 또 입찰 제로의 전환문제 이것은 交通管理室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뜻을 다시 한 번 交通管理室에.....

○李聲九 委員; 천연가스도 같이 연구해 주시라.....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300여대를 일단 목표가 2007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대중교통 쪽이 더 확충이 되고 이 시내버스가 더 감축이 되어서 한다면 한 교통정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신축성있게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금년, 내년도 하는 것은 특히 금년 480대 이것은 금년에 변동없이 추진이 되어야 될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값이 인상되는 문제, 지금 오히려 경유가격이 더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쪽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CNG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아마 일정한 갭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것으로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시내버스만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각종 화물차량들, 특히 청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들까지도 전부 다 빨리 CNG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지금 11톤 이상의 차량인 버스 그 엔진 제작이 되었지만 그 이하 차량들에 대해서도 저렴한 값에 장착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제인가 環境部 쪽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기반을 우리가 빨리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이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在實 委員님.

○金在實 委員; 金在實 委員입니다.

저공해 버스를 도입하는 경우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인가를 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재정지원을 해 주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金在實 委員; 그런데 만약에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안 됩니다. 타 용도로는 못 씁니다.

○金在實 委員; 타 용도로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저희는 일단 용자보조 조건에 그것을 명시해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在實 委員;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규정에도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12조제2항을 보면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의 용자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보조금을 즉시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자금은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전액을 상환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목적 외에 쓸 일이 없다면 이런 것도 쓸 필요가 없겠지만 목적 이외에 쓸 개연성이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 하고, 그 다음에 목적 외에 쓴다면 당연히 용자금도 보조금처럼 즉시 회수토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래서 우리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자신있게 쓰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지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재활용 사업자의 주민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목적은 다 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혹시라도 이것을 정말 목적에 벗어나서 다른 것 하는 데 썼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를 전혀 대비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마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金在實 委員; 목적 외에 썼을 경우에 보조금은 즉시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용자금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하여튼 상환기간 이 전이라도 우리가 빨리 회수를 해야죠. 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용자금이나 보조금을 줄 적에는 저희들이 용자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주는 절차도 CNG차량으로 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용자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제가 생각해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놔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在實 委員; 네, 별 필요없는 그런 문구가 조항이 될 수 있지만 그 조항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은 즉시 회수하고 용자금은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금 및 용자금은 즉시 회수한다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조금도 용자금도 모두가 하나의 보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적 외에 써 버렸다 하면 그 거짓말한 것도 꽤심하고 당연히 즉시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일부라는 말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런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金在實 委員; 보조금 및 용자금을 즉시 회수한다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떤 문제라도 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문제가 없습니다.

○金在實 委員; 그렇다면 즉시 회수토록 그렇게 자구수정을.....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金在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寬洙 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金寬洙 委員; 金寬洙 委員입니다.

아까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8,400대 전부를 3,000여 만원씩 용자 내지는 지원해 주려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그렇습니다.

○金寬洙 委員; 그리고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가 지금 취

합될 수가 있어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金寬洙 委員; 그러니까 8,400대라고 하면 8,400대를 공히 똑같은 조건에서 지원 내지는 용자신청을 하면 용자를 해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일단은 저희가 2002년도까지는 최소한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金寬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런 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름대로 노선이 괜찮아서 수익성이 있고 경영이 되는 회사까지도, 물론 대기의 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CNG가스버스를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하려는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있는 자한테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가급적 지원을 안 받으면서 술선수범을 해서 우리는 여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데가 있으면 참 다행입니다만 지금 이것을 주고 유인하려고 해도 자꾸 발을 뒤로 빼려고 합니다. 나는 좀 있기 때문에 안 받고도 해주겠다고 하는 업자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업체들은 이것을 쥐도 지금 못 하겠다고 나오고, 그나마 제대로 돌아가는 업체들은 이 정도 주니까 이제야 조금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 갖고는 자기는 도저히 못 하겠다 하면서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좀 운영이 어렵더라도 해 달라고 사정사정 하면서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여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용자 자체가 부족하더라도 도시가스 일반적인 사업에서, 일반적인 가정 공급하는 데서 경영이 잘 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출혈이 되더라도 참여하겠다는 것은 있는 데요.

버스업계는 지금 잘 된다고 하는 업체가 겨우 이 정도 지원해 줌으로써 유인이 되고 있고 경영이 아주 어려운 업체는 이나마도 참여를 못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더 끌어들이느냐, 이것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金寬洙 委員; 그런 정책의지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이 나라의 버스업자들이 많은 부를 축적해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업살을 부려만 왔단 말이지요.

요즘에 지하철이나 다른 수송수단에 의해서 분산되니까 이제 업살을 부리는 지경은,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관에서 물론 정책적 의지 자체는 우리가 대단히 칭찬하고 치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관의 어떤 정책이 아까 李聲九 副議長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교통제도나 교통수단의 전체적 개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에 변혁이 필요한 것이지, 서울시에 예를 들면 분명히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대기의 질이 좋아지리라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과 2% 정도의 수준이라면 다른 차원에서 근본적인 정책결정을 재고할 여지도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

미 시작해 놓고 나서 중간에 변경하기 보다는.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大氣保全課에서 청소차량 뭐 하려고 했던 것 있잖아요. 많은 돈 들여서 시설만 해 놓고 계속 사용하지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업체가 다 흔쾌히 응하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계획만 세워 놓고 그 틀 속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적어도 2,4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좋은 이상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차원의 공감을 얻었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억지로 끌어들이어서 하는 것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조차도 이런 제도나 지원해 주는 역할이 있음으로써 이 정책에 동조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이 좀더 굉장히 심각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싶어요.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신중히 편성해야지 적어도 7~8년 동안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더구나 아울러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영세업자들에게만 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金委員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우리가 따져 보았습니다. 지금 3,100만원씩 보조와 용자를 지원해 주더라도 8년 차량으로 보았을 때 지금 경유버스보다 얼마만큼 득이 되겠느냐 따져보면 약

1,000만원 정도 득이 됩니다.

그러면 8년 동안 하는데 아무리 여유가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8년간 해서 경유버스보다 1,000만원 득을 보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이것 지원 안 받고 자기 자본으로만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용자를 무조건 다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주고 용자보조신청을 안 받고도 나는 CNG로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을 다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재정상태를 우리가 상·중·하로 나누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는 얼마를 주고 어떤 경우에는 얼마를 주는 차등표를 만들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괜찮은 업체들은 그렇지 못 한 업체를 위해서 양보를 하고 용자나 보조금 중에서 안 받고 참여하는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도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金寬洙 委員; 그러니까 제가 경영진단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金委員님, 저희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을 헤쳐 나가고 있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寬洙 委員; 영세업자들이 관광버스를 살 때 보통 1억 정도 들어서 삽니다. 아주 없는 사람들도 그런 실정이에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 어려운 점을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36分 會議中止)

(11時 5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鍾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金在實 委員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實 委員; 金在實 委員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제2항 규정, "市長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 및 융자금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은 즉시 회수하고 융자금은 상환기간 전이라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목적 외에 사용한 보조금 및 융자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鍾來; 金在實 委員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金在實委員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金在實 委員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金在實 委員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特別市天然가스市内버스導入關聯財政支援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은 金在實 委員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天然가스市内버스導入關聯財政支援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委員長 金鍾來;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또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의 등 그 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토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과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인사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오늘로써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마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여러 가지로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감싸주셔서 2년 동안 큰 대과 없이 지낼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시더라도 지난 2년 동안의 상임위 활동을 서로 정으로 잊지 마시고 좋은 교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58分 散會)

○出席委員

金鍾來 金在實 金鎬一 金寬洙
金恩京 金判吉 金興植 朴來雨
宋美花 柳辰永 李成浩 車星煥
李聲九 李松竹

○專門委員

金南中

○出席公務員

環境管理室

室長 金承珪

大氣保全課長 張興淑